

신상철 Shin Shangcheol (b.1976)

 @shin_shangcheol

- 학 력** 2013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과 석사 졸업
2004 추계예술대학교 판화과 졸업
- 개 인 전** 2024 신상철 초대전, 갤러리 디바인 (서울)
Kubota 갤러리 신상철 개인전 (도쿄, 일본)
당림미술관 초대전 (아산)
로터스 갤러리 초대전 (부산)
홍대 더 컷 윈도우 갤러리 (서울)
2023 아르떼 마르코 부산롯데백화점 본점, 광복점, 동래점 (부산)
2022 구구갤러리 (서울)
2021 교하아트홀 초대전 (파주)
올리비아박 갤러리 초대전 (서울)
2020 근현대사 미술관 개관 초대전 (서울)
2018 갤러리오 초대전 (서울)
2015 남산도서관 갤러리 초대전 (서울)
2014 리더스 갤러리 수 초대전
그 외 총 25회 개인전
- 초대 / 단체전** 2024 공명, 박은혜&신상철 2인전 (갤러리 베누스, 경기)
사색 Contemplation, 박소희&신상철 2인전 (맨션나인, 서울)
에코락 페스티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유망중견작가 기획전 (갤러리 디바인)
갤러리 디바인 개관전 (갤러리 디바인)
나에게 힘이 되는 그림전 (핑고갤러리)
2023 LA art show (a.p space, LA)
서울국제아트엑스포 (코엑스, 서울)
대전국제아트쇼 (끼스튜디오)
울산국제아트페어 (a.p space)
포스트 팝 (끼갤러리)
그 외 다수
- 경 력** ~2024 추계예술대학교 창의예술대학 판화미디어과 출강
- 수 상** 2009 충무갤러리기획공모전 忠武路, (우수상)
한성백제미술대상전 (우수상)
2008 서울 메트로미술대전
2007 구한난 인터내셔널 프린트 비엔날레
2004 13회 공간국제 판화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그 외 다수
- 작 품 소 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캐치업코리아 사옥(일산), 에코캐피탈 사옥(일산), 근현대사 미술관(용인),
준리 컨템포러리(캘리포니아), a.p space(뉴욕), 진주법원, 원주벽산 블루밍 1.2차,
문정동 현대 지식인센터
그 외 다수

[Artist's Note]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불규칙한 집합체

나의 작업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규칙하게 쌓여 있는 자음과 모음의 집합체는 나에게 어쩌면 하루일 수도 있고 순간일 수도 있다. 또는 시공간을 넘어선 여러 기억의 덩어리일 수도 있다.

이는 나에게 하나의 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한 감정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무작위로 축적된 자음과 모음의 파편들은 개인의 기억을 소환시키며 말, 글, 그림, 사진, 영상, 음악, 관계 상황 등과 연관되어 특별한 무엇으로 다시 떠오르곤 한다.

이러한 조형적 시도는 수년간 반복되며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 탐구하고 있다.

초기에는 어떤 특정 이미지나 순간을 그대로 반영하는 재현적 시도도 해보았고, 감각적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추상적 표현도 해보았고, 단순한 색을 이용한 미니멀한 작업도 시도해 보았다.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습관이 생겼으며,

SNS(눈)를 통해 현재의 기억 층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자음과 모음의 무덤 같은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인간의 삶에서 기억이란 어쩌면 삶의 모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또한 무의식의 기억이 만들어 낸 시각적 산물이라 생각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의 논리에 의하면 그림이란 신체적 기억과 이성적 기억의 혼합으로, 이성적 기억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신체적 기억인 몸짓으로 표현하여 시각화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